



최유정 중학교 2학년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날씨 맑음

헤럴드경제 2025-05-16 16:59:37

"늦게 태어난 게 죄?" 아이들, 평생 '땀' 뻘뻘 흘려야... 최악의 전망 나왔다 [지구, 뭐래?]

"지난해도 너무 더웠는데"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지난 한 해. 최근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되레 '가장 시원했던 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돌이킬 수 없는 속도의 지구 온난화 때문. 실제 2020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조부모 세대에 비해 평균 7배가량 많은 폭염을 경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폭염 피해에 노출된 비중만 전체 83%로 추정된다. 심지어 폭염은 단순히 '더위'에만 그치지 않는다. 가뭄, 산불, 홍작으로 인한 식량 부족 등 이상 기후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실제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가 이어진다면, 2020년 출생자 중 3300만명(27.5%)이 작물 실패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830만명(7%)이 가뭄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960년대생에 비해 각각 2.6배, 2.8배 높은 수치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되레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나라들이 극심한 기온 변화에 따른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210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명줄과 같다"고 주장했다.



<더워서 땀 흘리는 아기>

신문 기사를 읽고 네티즌

기사를 읽고 나니 기후변화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현실이라는 사실이 크게 와닿았다. 단순히 '덥다'는 불편함을 넘어서, 폭염이 가뭄, 산불, 식량 부족과 같은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히 두렵게 느껴졌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계절과 날씨가 앞으로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 살아야 할 미래 세대들이 걱정된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기후 변화에 거의 책임이 없는 나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현실은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만든 문제인데, 피해는 힘없는 이들이 먼저 겪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는 것은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1.5도'라는 숫자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진짜로 누군가의 삶과 목숨을 가르는 일이라는 말이 마음 깊이 남는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오늘이 제일 시원했던 날'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실천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평소에는 카페나 학교에서 음료를 살 때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에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작은 변화지만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지만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부듯해졌다. 앞으로도 계속 텀블러를 사용하는 습관을 꾸준히 지켜서 더 많은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 시간이었다.



올
칼

의 유용
의 만능
물에 젖
이렇게
분의 물
대부분
유엔은
약을 제
있다. 우
야 하겠

시
니
플
안
독
하
어
집
이
생
작



최유정 중학교 2학년

2025년 6월 2일 월요일 날씨 맑고 선선함

올진신문 2024.02.23 17:46

칼럼/ 플라스틱과 해양 오염



플라스틱은 20세기에 석유를 원료로 만들어진 새로운 재료이다. 플라스틱의 유용성은 매우 커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재료가 되었다. 플라스틱은 포장재 등 다양하게 거의 만능으로 쓰이는 이유는 값이 싸고 만들기 쉽고 사용하려는 용도에 적절하고 튼튼하고 질기고 가볍고 물에 젖지 않고 전기 절연체이고 썩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이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이렇게 유용한 재료이기 때문에 천연 모피, 나무, 유리, 금속제품이 플라스틱 제품으로 대체되었다. 대부분의 물건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끝나 버려진 쓰레기는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플라스틱의 장점이 쓰레기가 된 뒤에는 단점 유엔은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권장하는 국제 협약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인류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고 분리수거하고 재활용 방법을 고민하고 해양오염 방지에 앞장서야 하겠다.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

플라스틱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정말 혁명적인 재료였단 걸 다시 느꼈다. 값도 싸고, 가볍고, 튼튼하고, 안 썩고, 물에도 적지 않으니 너무 편리해서 어디에나 쓸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결국 환경에는 독이 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특히 해변이나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물에 미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마음이 무거웠다. 단순히 보기 싫은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병들고, 환경이 파괴되고, 결국 그 피해가 인간에게도 돌아온다는 점이 정말 심각하게 다가왔다. 또 유엔에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드는 이유도 이해됐다.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을 읽고 나도 플라스틱을 더 적게 쓰고, 분리수거를 꼼꼼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작지만 실천을 꾸준히 한다면 변화가 생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실천하기



안 쓰는 콘센트 뽑기

평소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콘센트를 꽂아둔 채로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환경 실천을 하면서 대기 전력도 전기 낭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꼭 뽑아 두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는데, 처음엔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함께 실천하였다. 전기를 아끼는 작은 행동이지만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에 뿌듯하고 책임감도 느꼈다.





최유정 중학교 2학년

2024년 6월 9일 월요일

날씨 선선함

BBC Future 2025년 4월 26일

기후변화로 꽃가루 폭증 ... 알레르기 증상 악화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으로 특히 미국, 유럽, 호주 등 많은 지역에서 계절성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계절은 길어지고 증상은 더욱 악화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올해 미국의 경우 39개 주에서 꽃가루 수치가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꽃가루 자체는 이 세상에 필수적인 존재이자, 늘 우리 삶에 있던 요소였다. 이 미세한 입자는 식물과 식물 사이를 돌아다니며 이들의 번식을 돕는다. 곤충의 도움으로 꽃가루를 퍼뜨리는 식물도 있으며, 바람에 의존하여 엄청난 양의 꽃가루를 공중에 날려 보내는 종도 있다.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계절성 알레르거나 고초열 유발 가능성이 커진 알레르기성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꽃가루를 유해 물질로 잘못 식별하여 병원성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맞서 보일 법 한 반응을 유발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콧물, 눈 가려움, 재채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기도의 염증으로 인해 부풀어 오르면서 폐로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기 어려워진 탓에 호흡 곤란을 호소

신문 기사를 읽고 느낀 점

이 기사를 읽고 나서, 기후 변화가 단순히 날씨나 해수면 상승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꽃가루의 양이 많아지고, 꽃가루가 퍼지는 기간까지 점점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로 고통받고 있다. 기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건강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뇌우 천식'이라는 현상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천동번개가 칠 때, 공기 중의 꽃가루 입자가 작아져서 사람들의 폐속 깊숙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라 느껴졌다.

또한 기사에 나온 것처럼, 2100년까지 꽃가루 배출량이 4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는 기간도 19일이나 더 길어진다는 예측은 미래가 결코 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나 역시도 한국이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우리나라에서도 꽃가루 예보나 대기질 정보 같은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공기질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되었다.

실천하기



휴지는 사용할 만큼만 쓰기

평소에는 급하게 휴지를 많이 쓰곤 했는데, 이번 환경 실천을 통해 휴지를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이렇게 휴지를 절약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가끔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작은 행동이지만 너무 한 그릇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소한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는다. 환경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이 생겼다.



작
이
작
들
다



최우수상

최유정 중학교 2학년

2024년 6월 16일 월요일

날씨 비

"음식 남기면 나중에 벌받는다" 이젠, 농담이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톤이 감소하며, 이는 승용차 4만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나 쉬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지구는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다.



작품설명

이 포스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작품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자 지구가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변하는 모습을 통해 음식물 낭비가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에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시각적인 비유를 통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천하기



집안에서 식물 키우기

처음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 단순한 호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매일 물을 주고, 해가 잘 드는 자리를 찾아주는 과정 속에서 식물도 나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잎이 새로 돋아나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지구에 좋은 일을 했다는 작고 따뜻한 자부심이 생겼다. 공기 중에 퍼지는 맑은 기운, 초록빛의 잎사귀가 주는 싱그러움, 양분과 공기를 정화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는 생명을 가까이서 느껴보는 건, 생명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지게 만드는 것 같다!



2024년 6월 23일 월요일

날씨 맑음



실천하기



양치할 때 컵 사용하기

예전에는 무뎌 물을 틀어놓은 채 양치질을 하곤 했다. 하지만 컵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물을 아무 생각없이 틀어보냈는지 깨닫게 되었다. 작은컵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하루 3번, 일주일이면 21번, 물 낭비를 줄인다는게 구체적인 숫자로 다가오며 매일의 습관이 바꾸는 힘이 될수있다는걸 실감하게 되었다. 단지 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의 마음가짐까지도 함께 달라졌다고 느꼈다.



실

만화...



최유정 중학교 2학년

2024년 6월 23일 월요일

날씨 맑음

< 먼지사이로 피는 꽃 > < 지구는 묻지 않았다 >

하늘이 회색으로 굳어갈 때,
나는 문득 생각했다.
봄은 언제부터
향기 대신 미세먼지를 뿌렸을까?

지구는 묻지 않았다.
너 몇살이냐고,
돈이 많냐고,
유명하냐고.

꽃은 피었지만
별이 오지 않았고
햇살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창밖에 나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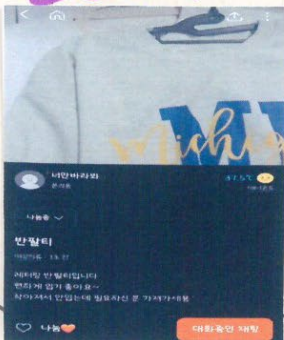
그냥 햇빛을 주었고,
그냥 물을 흐르게 했고,
그냥 살아있게 해줬다.

창문에 붙은 먼지를 닦다 말고
나는 살며시 묻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답없는 친절을
당연하다고 불렀다.

"이 꽃, 정말 봄이 맞긴 한걸까?"

실천하기



안 입은 옷 중고 마켓에 올리기

옷장을 열었을 때,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다. 그동안은 그저 쌓아두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하러, 중고마켓에 올려보았다. 처음엔 조금 귀찮을 줄 알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입지 않는 옷이 꼭 필요한 옷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놓은 옷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다시 사용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했다. 옷 한벌이 쓰러기가 되지 않고, 다시 쓰임을 얻는 과정을 지켜보며 순환하는 소비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였다.





최우수상

최유정 중학교 2학년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날씨 햇빛

[붉은 하늘아래의 하루]

창밖은 언제나 붉었다. 잿빛 건물들 위로 드리워진 하늘은 마치 거대한 화로처럼 시뻘건 불씨를 품고 있었다.

그 불씨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우고 남은 잔해처럼 희미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공기 중에 떠다녔다. 내가 살고 있는 2077년의 대구는 푸른 하늘을 잃은지 오래였다. 나는 낮은 방의 창가에 앉아 두꺼운 방진 마스크를 벗었다. 마스크 안쪽은 땀과 습기로 축축했고, 폐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늘 텅텅하고 무거웠다. 한때 '미세먼지'라 불리던 것들은 이제 '일상의 숨'이 되어 버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바깥공기는 폐를 찢을 듯 날카로웠고, 뜨거운 열기는 피부를 태웠다. 어릴 적 사진첩을 들춰봤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웃고 있는 나의 어린 모습. 그 옆에는 풍이 무성한 나무들과, 햇살 아래 반짝이는 강물의 사진이 있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다. 강물은 말라붙어 거대한 균열을 드러냈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붉은 흙먼지 속에 잠겨 있었다.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른들은 경건했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다. 편리함과 욕망에 눈이 멀어 지구의 비명을 외면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매일 밤 악몽처럼 찾아오는 가뭄, 홍수, 그리고 끝없이 타오르는 산불의 기억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것은 그저 '삶'이 되었으니까. 나는 낮은 노르북을 열었다. 한 면에는 내가 몇 년째 쓰고 있는 불조가 띄워져 있었다. 글을 쓰는 동안에도 붉은 불씨들은 창밖에서 끈질기게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우리가 뭘 했던 결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붉은 하늘은 경고입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없습니다." 글을 쓰니 손끝이 떨렸다. 이 절박한 메시지가 과연 붉은 하늘 아래 지쳐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아니, 닿아야만 했다. 더 이상 읽을 것이 없지만, 아직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행동하는 것 뿐이니까. 불조가 꺼지 버릇을 눈자마자 방안의 공기 정화기가 바깥거리는 소리를 냈다. 필터 교체 시기가 한참 지났다는 경고음이었다. 전복에서 배급하는 필터는 한 달에 한 개뿐이었고, 암시장에서는 리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텅텅한 공기를 들이 마시며 나는 냉장으로 향했다. 텅 빈 선반,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며칠 전 배급받은 영양바 두 개 뿐이었다. 물은 더 거뻏다. 하루에 딱 한번, 정해진 시간에만 배급되는 물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다. 그마저도 점점 양이 줄고 있었다. 어제, 이웃집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열사병과 라수 증세였단 한다.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실내 온도마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창밖의 불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씨는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마치 우리의 무지를 비웃듯이. 나는 다시 노르북 한 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불조 댕글창에는 몇 개의 새롭고 단단한 물건들이 달려 있었다.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비논리적인 내용이었다. "또 시작이네. 지겹다. 어차피 끝난 세상인데 뭐?" "과거 탓해서 뭐함? 지금 당장 숨쉬기도 힘드는데" 하지만 그 사이, 아주 작은 한두개의 공감하는 것도 보였다. "맞아요. 저도 답답해요. 뭘 해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작은 댕글들이 날 다시 일으켜 세웠다. 고대, 아직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다시 마스크를 썼다. 텅텅한 공기가 폐를 찢을 것 같지만, 이번에는 어떤가 모르게 미약한 희망의 냄새가 섞여있는 것 같았다. 창밖의 붉은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씨가 아니었다. 우리가 외면했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증거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경고였다. 나는 이 결론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붉은 하늘을 향해 외쳤다. "푸른 하늘아, 기다려라!!"



다
그
제목
장르
러닝
각자
니
이
지유
지구
보라
태향
담임
인
"내
지유는
밤새
해미
절정
"또
(지
있다
'지구
실





최우수상

최유정 중학교 2학년

2024년 7월 7일 월요일

날씨 맑고 덥습니다

단편영화 대본 개요

제목: 지구가 나한테 말 걸었어

장르: 코미디, 판타지, 감동

러닝타임: 약 8~10분

주제: "지구는 말이 없지만, 무시하면 말이 많아진다"

등장인물

지유(중2): 귀찮은 거 싫어하는 '현생중' 스타인. 지구에 관심도 없다가 큰 사건을 겪음.

지구(???세기): 말이 많고 감정 풍부한 지구 의인화. 지유의 스마트폰에 빔의함.

보아: 반에서 환경 동아리 박장. 늘 혼자 열정 넘치지만 외면 당함.

태환: 뭔가 맨날 먹고 다니는 친구. 분리수거 도모름.

담임선생님: '환경? 그건 뉴스에서나 나오는 거지~'라는 타입.

시놉시스

"내 핸드폰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지구였다고?"

지유는 환경에 관심도 없고 "플라스틱 줄이자"라는 얘기만 들어도 허풍이 나오는 평범한 학생. 그런데 어느날 밤새 충전하던 핸드폰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더니 스스로 말을 걸어온다. "야. 나 지구야. 지금 진짜로 너랑 얘기 좀 해야겠다" 지구는 지유의 일상속 환경파괴 장면을 전부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참견하기 시작하고, 지유는 점점 이상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다. "치킨 시킬거면 써 있는 걸로 시켜. 너 써 없이 먹고 플라스틱 영접 버렸잖아" "또 일회용컵이야? 너 내일 싸우자는 거지 지금?" 핸드폰 안 지구는 지유에게 미래의 '재앙급 장면'을 보여준다. (자판기에서 공짜로 파는 미래, 공식으로 미세 먼지 튀김 나옴...) 점점 지유는 무시무시한 미래가 '진짜로' 온수 있다'는 걸 체감하긴, 반에서 이상하게 추궁 당하던 '환경동아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과 함께 먹이는 '지구 되살리기 대작전'의 영광진장이지만 점점 주목을 받는다.

실천하기



집안에 간이 분리수거장 설치하기

분리수거는 매년 마지막에 귀찮다며 미뤄왔던 일 중 하나였다. 그래서 이번에 집안 한쪽에 분리수거 전용 공간을 직접 만들었다. 플라스틱, 캔, 비닐 등으로 구별한 간이 분리수거장을 배치해두니 하루에도 몇 번씩 자연스레 쓰레기를 분류하게 되었다. 단순한 공간 하나가 나의 행동을 바꾸고, 가족들도 함께 실천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분리수거는 번거롭다'는 인식이 '분리수거는 일상이다'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





최유정 중학교 2학년

2024년 7월 7일 월요일

날씨 짙짙

장면 1- 핸드폰 빙의사건

:(핸드폰 들고 침대에서 골러다님) "아 피곤해 내일 발표도 있고 귀찮아..."
 폰: (진동) "지금 귀찮은게 문제냐? 난 숨도 못수고 있는데"
 : "뭐야? 애 또 업데이트 됐어?"

장면 2- 미래의 급식실

래 꿈 속 장면. 친구들이 급식판위에 무언가 올림)
 : "와 오늘은 그나마 덜 탔네. 미세먼치 튀김 나이스~"
 : "재는 초콜릿마루맛 쓰레기도 먹겠다..."
 판위: 종이컵에 담긴 흰색 면지, 플라스틱 볶음밥, 스티로폼 수프

장면 3- 지구와 대화

: "아니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 "네가 쓴 일회용 컵만 줄여도 내가 좀 숨 쉬거든?"
 : "오케이 텀블러 샀다. 그럼 이제 조용히 해"
 : "그래 바로 그거야!!"

장면 4- 반전

동아리 발표회. 다들 핸드폰만 쳐다보는 중.
 : "여러분 지구가 진짜 말을 했어요. 저한테"
 적)

: "지유야... 너... 요즘 잠은 재니?"
 나 발표 영상이 SNS에서 화제되고, 친구들이 하나들 캠페인 참여함.)

장면 5- 마무리

가 핸드폰을 들고 창문을 열어 말함
 : "지구야 나 듣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더 버려줘"
 (밤, 핸드폰 진동. 지구의 목소리)
 : "나 지금... 살짝 웃고 있다"

천하기



안입는 옷 업사이클링해서 인형 만들기

버리게엔 아깝고, 입엔 낡은 옷들을 손에주고 고민하던 중 인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느질은 서툴렀지만 엄마와 함께 한땀 한땀 꿰매다 보니 짐짓 귀여운 모양을 갖추려는 인형을 보며 웃음이 났다.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나만의 손길이 담긴 창작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버려졌을 옷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게 작지만 분명한 희망처럼 다가왔다.





2025년 7월 13일 일요일

날씨 흐리고 비



나는 열 장의 일기 속에 지구를 향한 내 마음을 푹푹 눌러 담았다.
 단디와 똑디는 오늘도 지구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날아오고
 우디는 조용히 뿌리를 내리며 숲을 보살핀다.
 맑은 하늘, 깨끗한 물, 푸른 숲... 이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나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장을 넘기려는 지금, 단디와 똑디, 그리고 우디가 내게 말을 건다.
 "서연아, 우리랑 함께 지구를 지켜줄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그들과 함께, 지금이 순간부터 지구를 아끼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기로 다짐한다.
 이 일기는 끝났지만, 지구를 지키는 나의 실천은 이제 시작이다.



매일 습관적으로 텀블러 챙기기, 전기 한번 덜컸 날 하나.
 그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지구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나는 '나하나쯤이야' 대신 '나부러라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로 했다.
 내 일가처럼, 나의 작은 결심이 언젠가 지구를 지키는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장을 덮는다.

